

광주FC 캡틴 '박기동' 태극전사 됐다

K리그 돌풍주역 생애 첫 대표팀 합류... 전남 지동원도 차출

광주 FC의 '캡틴 박'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이 은두라스(25일)·몬테네그로(29일)와의 평가전에 출전할 대표팀에 박기동(23) 등 젊은 K리그거들 대거 발탁했다. 조 감독은 15일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A매치 경력이 없던 공격수 박기동, 골키퍼 하강진(22·성남), 수비수 김태환(22·서울), 미드필더 김성환(25·성남) 등 5명을 포함한 국가대표 27명을 발표했다.

아), 박주영(이와타) 등 6명도 합류했다. 소속팀 적응이 필요한 미드필더 구자철(볼프스부르크)은 조광래 감독이 막판 차출을 원했지만, 미리 소집 요청 공문을 해당 구단에 보내지 않아 대표팀 승선이 무산됐다. 국내 K리그 중에서는 떠오르는 공격수 박기동의 발탁이 가장 눈에 띈다. 박기동은 지난해 일본 J2리그 FC기후에 입단해 실패를 맛보고 나서 국내로 돌아와 신생팀 광주FC에 등지를 틀었고 올 시즌 초반 K리그에서 맹활약해 조광래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

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박기동은 득점력이 뛰어난 데다 191cm(83kg)의 장신임에도 유연성이 좋고 패싱력 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학 재학 때부터 한국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 "J리그에 진출하고 나서 부진했고 현재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득점력이 있어 앞으로 기대할 만한 선수"라고 박기동의 발탁 배경을 전했다. 대표팀의 주축 공격수로 성장한 지동원(전남 드래곤즈)도 일단 차출됐다. 지동원이 무릎 타박상으로 K리그 1, 2라운드에 결장했지만, 25일까지 컨디션을 살펴보고 나서 평가전 투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이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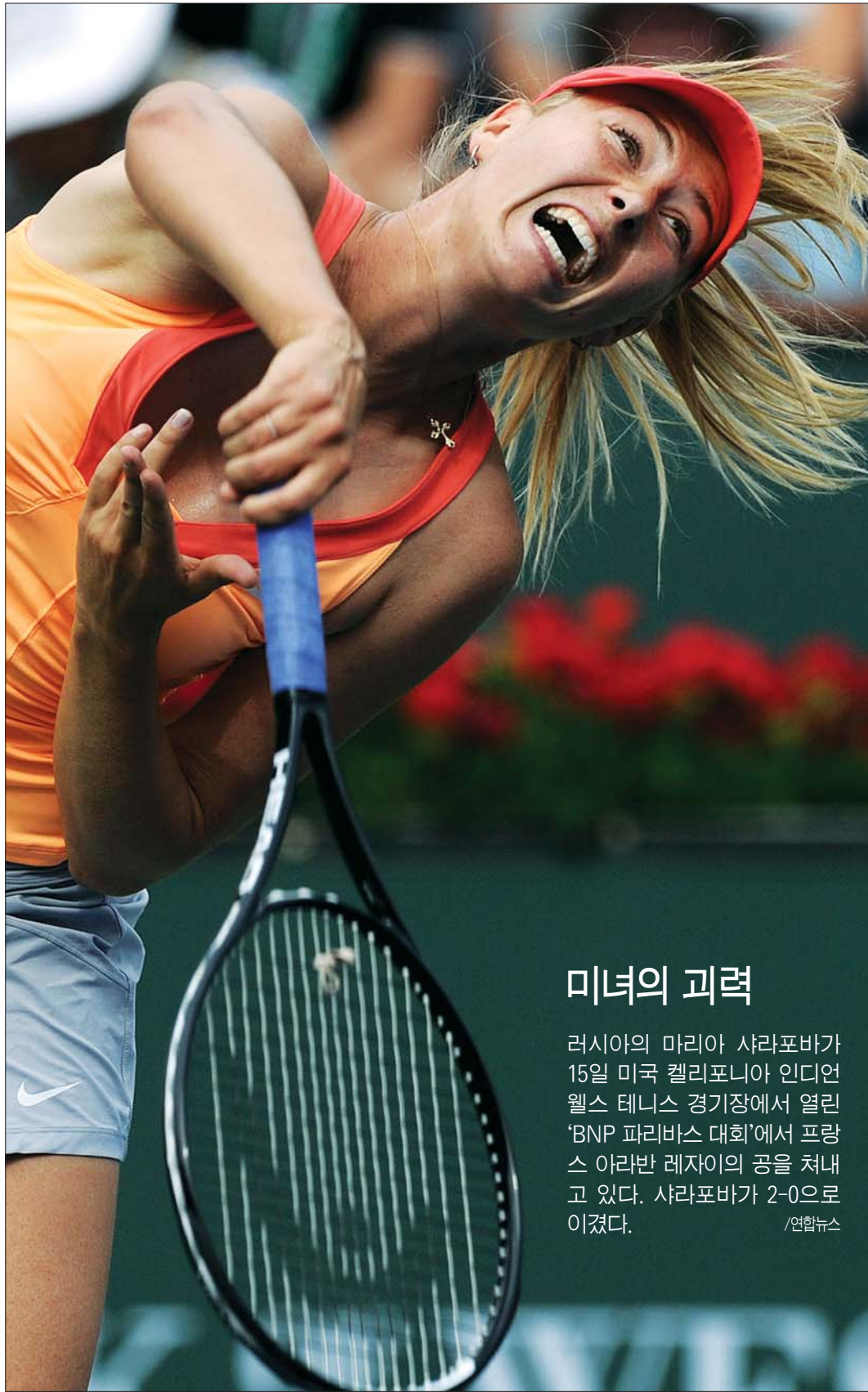
에서 3골을 터뜨린 김정우(상주 상무)도 이름을 올렸다. '주먹 감자' 육설배 K리그 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수비수 홍정호(제주)는 탈락했다.
<대표팀 명단>
골키퍼(3명) = 정성룡(수원)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하강진(성남)
수비수(9명) = 곽태휘(울산) 이정수(알사드) 김영권(오미야) 황재원(수원) 박주영(이와타) 최효진(상주) 이상덕(대구) 홍철(성남) 김태환(서울)
미드필더(9명) = 이윤래(수원) 윤빛가람(성남) 김성환(성남) 기성용(셀틱) 이창용(불턴) 김보경(세레소 오사카) 조영철(니가타) 조찬호(포항) 고창현(울산)
공격수(6명) = 박주영(AS모나코) 지동원(전남) 김정우(상주) 김신욱(울산) 이근호(갑파 오사카) 박기동(광주)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PO 진출 넘보지마”

오늘 프로배구 준PO... 삼성-LIG '화력 대결'

16일부터 20일까지 벌어지는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의 프로배구 준플레이오프에서는 화려한 양팀 공격진의 '화력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화재는 '캐나다 폭격기' 가빈 슈미트(25)와 '윈슨 거포' 박철우(26)가 최강 좌우 쌍포를 구축했고, LIG손해보험은 '꽃미남 거포' 김요한(26)과 베테랑 이경수(32), 밀란 페피치(27)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편대가 위협적이다. 가빈과 박철우는 화려한 경력만으로도 검증이 끝난 리그 최고의 공격수다. 가빈은 지난 시즌 각종 공격 부문의 개인상을 휩쓸며 정규리그와 올스타전, 챔피언결전전에서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쥐고 '역대 최고 용병'으로 우뚝 섰다. 박철우 역시 가빈이 등장하기 전인 2008~2009시즌 정규리그 공격상과 MVP를 휩쓸 바 있다.



미녀의 괴력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바가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인디언 웰스 테니스 경기장에서 열린 'BNP 파리바스 대회'에서 프랑스 아리안 레자의 공을 쳐내고 있다. 샤라포바가 2-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태극마크 단 박기동

“박주영 선배와 투톱 파트너 영광 대표팀 주전 경쟁서 살아 남겠다”

“박주영 선배와 함께 뛰게 돼서 영광이다. 나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 조광래호에 승선한 광주 FC 주장 박기동이 은두라스, 몬테네그로와의 평가전을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의 무대에 삼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학창시절부터 유연한 몸놀림과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차세대 스트라이커 재목으로 주목받은 박기동은 지난 5일 조광래 감독이 지켜보고 있던 K리그 데뷔전에서 2골을 몰아넣으며 대표팀 발탁이 유력시 됐다. 박기동은 “일본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하지 못하고 돌아와 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신생팀에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 국가대표를 목표로 K리그 무대에 뛰어들었는데 소원을 이뤘다”며 “대표팀에 발탁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진짜로 태극마크를 달게 되니 기분이 좋다. 박주영 선배와 투톱 후

보리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영광스러울 뿐이다”고 태극마크를 단 소감을 말했다. 박주영은 박기동이 톱모델로 꼽아오던 선수. 대표팀에서 가장 많은 걸 배워주고 싶은 선수 역시 박주영이다. 박기동은 “대표팀에 가서 박주영 선배의 움직임 특히 끝판 앞에서의 움직임 배우고 싶다. 처음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나의 장점을 잘 살리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에 대한 욕심도 솔직히 밝혔다. 박기동은 “포워드로서 골 욕심은 당연하다. 하지만 팀플레이가 우선이다. 팀에 적응하면서 찬스가 나면 과감히 골에 도전하겠다”고 언급했다. 박기동은 20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 현대와의 K리그 3라운드를 소화한 뒤 23일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자매도시 센다이 지진 참사 애도

오늘 컵대회 '검은 완장' 출전

빛고를 전사들이 검은 완장을 하고 그라운드에서 뛰었다. 광주 FC가 16일 오후 7시 춘천종합운동장에서 강원 FC와 리그컵 첫 경기를 갖는다. 리그컵에 나서는 광주 선수단은 대지진과 쓰나미로 고통받고 있는 자매도시 일본 센다이시에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 '흰 내라 센다이(がんじゆ 仙臺)'라는 문구가 써진 검은 완장을 한 채 경기를 한다. 2002년 4월 광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센다이는 지난 11일 대지진으로 인해 큰 피

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FC 관계자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사상 최악의 지진피해로 삶의 여파에 있는 일본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를 수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한편 '러시엔캐시업 2011'을 타이틀로 한 리그컵은 16일 전국 6개 경기장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광주는 울산, 부산, 전남, 강원, 상주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전남 드래곤즈는 광양전용구장에서 오후 7시 상주 상무와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日 배구경기 취소... 김연경 국내 코트 복귀하나

프로배구 여자부에서 포스트시즌을 앞둔 현대건설과 도로공사가 일본 대지진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뛰는 김연경이 최근의 지진으로 일본 내 배구경기가 모두 취소되면서 친정팀인 흥국생명으로 돌아와 포스트시즌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다이아 마모루 흥국생명 감독은 15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김연경의 복귀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우승하기 위해 지금 있는 전력을 가다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현대건설과 도로공사 사령탑은 입이 바짝 마른 표정이다. 정규시즌을 잘 치르고 화룡점정을 하려는 순간에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돌발 변수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챔피언결전에 직행한 1위 현대건설의 황현주 감독은 “김연경의 복귀가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해서 챔피언전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 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 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와인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